

2019 년 1 학기 One Asia 재단 국제세미나

「인문교양:아시아 공동체: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형」 시리즈 강좌 (3)

주제: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과 장학금제도

제 3 회 One Asia 재단 국제세미나는 대만의 국립지남국제대학(暨南國際大學) 국제문학비교 및 비교교육학과(國際文教與比較教育學系) 양우신훈(楊武勳) 특훈교수가 강연하셨습니다. 특별히 양 교수에게 감사를 표한다. 양교수는 캄보디아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문화대학교에 들러 우리에게 일본 유학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이 강연은 일본으로 유학할 계획이 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국제화, 세계화의 출발점으로 학생들이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는 자국인 대만만 보지 않고 세계관을 키워 제 2 외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양 교수는 학부 시절에 전공인 영어를 수강하면서도 일본어 수업을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베트남어, 한국어, 크레르어도 같이 배웠다고 한다. 유학은 자기 성장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왜 일본에 가서 유학을 했는가?',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일본 장학금제도' 등 세 가지로 나눠서 자기의 유학 경험을 나누었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비법도 알려주셨다.

양 교수는 학생들이 유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나라에 있어서 유학은 문화교류를 촉진하며 외국인 재를 양성시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사회에 있어서는 문화교류와 사회 다원적 가치관을 촉진시킬 수 있고 대학교에 있어서는 대학 국제화 지수를 높여 학생의 진로를 열어주는 동시에 새로운 학자를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면서 국제적 사고를 확대하며 삶에 충실하여 전문적인 「국제인재」가 될 수 있는 기회이다.

이어서 일본 유학생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다. 일본이 1954년에 「공비유학생」제도를 설립하여 1984년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모집」계획을 세우고 2008년에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모집」계획을 실행하였다. 「10만 명 모집」계획은 처음에는 일본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었고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의 주목을 이끌려고 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모집」계획은 「산업·정부·학교의 협동교육」보조로 우수한 유학생을 일본에서 취직을 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오늘날까지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우수한 인재가 일본에서 취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일본에서 취직하고 싶다는 것이 64%를 차지하여 방문취업 비자 신청 통과율이 높다. 2015년 일본에서 취직한 사람은 35%를 차지했으므로 일본 정부에서는 미래 50%까지 증가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전망이다. 즉 유학생 두 명 중 한 명은 졸업 후 일본에서 취직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통해 뽑힌 유학생은 아시아 유교권 학생들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남아시아 인구가 많으므로 구격화가 명확해지고 인문영역은 공학영역보다 많아 장학금은 국제 원조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장학금제도에 대해서 교수는 유학가기 전에 신청할 수 있는 일본 유학장학금으로 중화민국교육청공비유학장학금, 공익재단법인 일본대만교류협회(장기,단기)장학금, 기타 국내외 재단법인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예: 마쓰시타재단(이공 제한된)), 그리고 기타 「단기 장학금」(예: (1)쉐하이베이양(學海飛颺), 쉐하이주몽(學海築夢)(교육청), (2)쉬하이시주(學海惜珠)(교육청), (3)일본-대만교류협회(일본학생지원단위)단기교환학생장학금)등을 언급하셨다.

유학 중인 학생은 (1) 일본대만교류협회 국내채용, (2)로타리클럽 장학금, (3)渥美장학금, (4)마쓰시타연구보조금, (5) 일본 학술진흥회 등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고 유학이 끝나는 학생들은 (1)일본-대만교류협회 귀국외국인유학생 단기 연구제도, (2)일본학술진흥회 외국인 특별연구원, (3) 로타리클럽 교환교수보조금, (4) 스미토모 자이바스 재단 연구보조금, (5)일본국제교류기금등 5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장학금을 받기 위해 교수는 개인 경험으로 유학 전 준비, 유학 중의 적응, 유학 후의 사고 등 세 가지를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꿈을 가지

는 것은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다. 목표, 꿈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자신의 글로벌 이동성 능력을 양성하여 세 가지 언어능력(최소 2 가지)을 키워 국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유학생이 국제인재로서 힘을 써야 나라가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번역: 사완영(한국어문학과 석사과정)

감수: 김선효(한국어문학과 부교수)